

네트워크 거대공룡 시스코의 그린산업 투자 동향

- 스마트 그리드 산업에 관심과 투자 집중 -

2010까지 온실가스 40% 자체감축 목표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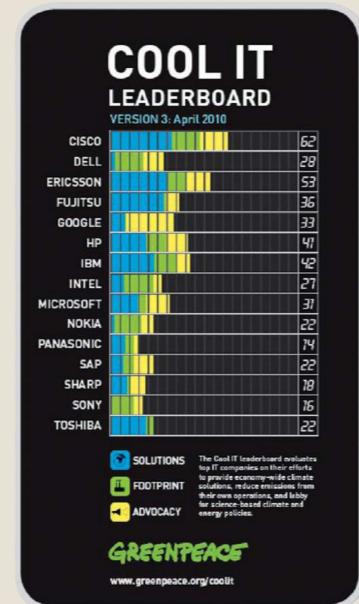
시스코는 글로벌 스마트 그리드 개발의 중심 업체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IT 솔루션 제공 기업 중에서 온실가스 감소와 다양한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회사 자체적으로는 2012년까지 2007년 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25% 줄일 것이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현재 시스코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37%는 재생에너지로부터 온 것이다. 실질적으로 회계연도 기준 시스코의 200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661,483톤이었으며 2009년 395,944톤으로 2007년 대비 40% 감소하여 실질적인 목표 달성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시스코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의 논쟁 중에서도 정보 제공의 역할을 계획하지 않음으로서 정부 정책 결정에서도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린피스가 IT 기업을 평가한 것은 이번이 3번째인데 시스코는 19점, 31점, 62점으로 점수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시스코는 IBM이나 스마트 플래닛(Smart Planet)과 같은 브랜드 인지도나 마케팅 캠페인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기업과 개인 고객이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그리드 제품과 서비스의 모든 분야를 빠른 속도로 개발 중이다. 인터넷의 적자를 담당하고 있는 기기와 기술 스탠다드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시스코는 에너지 '네트워크'의 창조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 만들어

시스코는 그린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2008년 10월 개념을 시작으로 OMAOG(One Million Act of Green)을 전개하였다. 개인, 단체 혹은 커뮤니티 별로 각자 실행한 그린 활동의 수치를 기록함으로써 감소된 온실가스량을 확인할 수 있다. 소셜네트워킹 사이트를 포함하여 학교, 지방자치단체, 비즈니스, 정치인, 유명인사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한 번에 하나씩 그린 활동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백만 가지의 그린 활동을 하는 것이 목표이다. OMAOG(www.greennexxus.com)에 등록을 한 후 웹사이

그린피스의 Cool IT 리더보드



출처 : Greenpeace

트에 기재되어 있는 그린 활동을 클릭하면 된다. 아무도 없는 방의 소등에서부터 연료효율성이 높은 자동차 구입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각자가 실행한 그린 활동을 클릭하면 다른 사람들의 그린 활동에 추가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린 활동과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7월 시스코는 가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양을 보여주는 기기 출시를 발표하였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시스코는 단 한 개의 공식적인 스마트 그리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였으나 지금은 가정용 에너지 관리 제품을 포함하여 스마트 그리드 전 분야를 다룰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스코의 가정용 에너지 제품은 가정용 소비자들이 손쉽게 에너지를 관리하고 모니터할 수 있게 해준다. 전력 공급과 커뮤니케이션 기계를 조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사용자가 소비하는 전력을 절약할 수 있게 해준다.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 온도계, 스마트 가전제품 등 다양한 제품과의 연동이 가능하다.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위한 다양한 업그레이드 제품도 출시하였다.

시스코는 스마트 그리드 통신 솔루션의 새로운 포트폴리오인 커넥티드 그리드(Connected Grid)에서 최초의 제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제품은 유트리티 기업이 발전시설로부터 기업과 가정에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전력을 공급하여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에너지관리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스위치는 변전소에서 IP와 전력그리드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그리드를 감시하는 고도의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제품은 환경 보호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Climate Group이 발표한 스마트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 적용되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20억톤의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태평양 북서 국립연구소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PNNL)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다면 세계 에너지 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스코의 2000 시리즈 Connected Grid Router



출처 : 시스코

시스코의 스마트 그리드 사업부 로라 이프센(Laura Ipsen)상무는, 시스코가 최첨단 IP 통신인프라를 사용하여 기업들이 세계의 미래 에너지수요량에 맞춘 에너지 공급과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하드웨어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스코의 정책이다. 기존 시설에 기반을 둔 IT를 제공함과 동시에 신기술 도입으로 스마트 그리드의 지속가능성을 올리는 것이다. 시스코의 향후 행보에 전세계 그린 투자자와 기업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